

■ KIA 투수



'한기주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김 옥 순 씨



'스타 팬터팬' 팬 클럽의 힘으로!

'황금팔' 한기주(19-KIA)의 열성팬인 김옥순(27·여·김정평가사·사진)씨는 요즘 팬클럽 관리에 빠져 지낸다.

지난 9월 인터넷 사이월드에 개설한 '팬터팬' 회원의 순 한기주 선수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한사모)(club.cyworld.com/kiju04)의 회원수가 3개월 여만에 250명을 넘어서면서 클럽장인 김씨의 할일도 그만 많아졌다.

수만명에 달하는 타 유명 클럽에 비하면 소규모지만, 모두 '진성회원'들로 구성돼 그 활동 영역만은 알차다.

개설 3개월만에 진성회원 250명

클럽 규칙도 간단하다. '타 선수를 비방하지 말자', '건전한 인터넷 응원문화를 이끌자'가 전부다.

김씨와 한사모 회원들은 지난 10일 전남대 후문 한 카페에서 기존 팬 클럽 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킨 뜻깊은 팬 미팅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식당모임이나 팬들이 연습장을 찾는 기존의 행사와 달리 한기주와 팬들이 사전 교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형태

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의 백미로 꼽힌 한기주의 올 시즌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도 한기주와 팬 클럽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 만들어낸 작품이다.

스타급 연예인들에게는 다소 흔한 팬 미팅이지만, 프로 스포츠계에선 보기 드문 행사다.

한때 한국 프로야구를 평정했던 김상현, 선동열, 이종범으로 이어져온 팬 미팅은 그동안 단순히 식사자리나 사인회를 마련하는 게 전부였다.

한기주의 고고 시절부터 팬이었던 김씨는 지난 9월 사이월드에 클럽 '한사모'를 만든 뒤 '한기주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행해 옮겼다.

김씨는 우선 한기주의 사이월드에 접속해 '1촌 관계'를 맺고 있는 팬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권유했고, 클럽 개설 3개월만에 '진성회원' 250명을 모을 수 있었다.

한기주도 이 팬클럽의 '진성회원'이 됐다.

김씨는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지난 10월, 회원들에게 인기 연예인들의 팬 미팅 행사를 한기주에게 접목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팬 클럽 활동이 가장 활성화된 회원 10명과 함께 1개월동안 매주 2~3회씩 모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는 한기주와 사전 조율을 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결과는 선수와 팬 모두 대 만족.

한기주는 이날 행사에서 "팬들 앞에 서니 마운드에 올라선 것보다 더 멀리고, 승리투수가 된 것보다 더 기쁘다"며 "내년 시즌엔 팬들에게 실망스럽지 않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한사모는 현재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진행중이다. 한기주의 이름을 걸고 자원봉사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봉사활동 계획안도 마련해 놨다.

2006년 12월 15일 행사는 전시회 및 전시회 프로젝트 실행

또 KIA 구단과 협의해 한기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회원 가운데 1명을 명예기자 형식으로 선발, 직접 구단측에 인터뷰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클럽 회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김씨는 "침체된 프로야구가 살아나는 길은 스타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건전한 온라인 응원문화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토지' 작가 박경리 여사

활도 생일잔치상 받는다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생일을 맞아 전국의 독자들이 원주 토지문화공원에 모여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생일잔치를 마련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 Daum 카페 '토지문화관'에 가입한 회원들은 박 선생의 81회 생일(12월 18일)을 맞아 주말인 오는 16일 낮 12시 원주시 단구동 옛 집터에 조성된 토지문화공원에서 생일잔치를 열기로 했다.

서울, 부산, 목포, 마산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20여명의 팬 회원들은 남에게 폐가되거나 요란한 것을 싫어하는 선생의 성품을 익히 잘 알고 있어 각자 자신 있는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와 소박한 생신상을 차리기로 했다.

박경리 선생의 생신잔치에는 회원들과 함께 선생의 외동딸이자 김지하 시인의 부인 김영주 토지문화관관장, 소설가 오정희씨, 김성훈 상지대 총장, 양수진 현대문화사장 등 가까운 지인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영광출신 류혜숙 인력기획조정과장

진남제전보존회 새 이사장

김종익 이사 선출



김종익이사가

(사)진남제전보존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한국 4-H중앙연합회장에

보성출신 임용민씨 당선

보성출신 임용민(29·사진)씨가 최근 제 27대 한국 4H 중앙연합회장에 당선됐다.

신임 임회장은 95년 강진농고 재학시절 4H에 가입해 12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전남전문대학 학회원에 꼽았던 임회장은 보성군 4-H연합회장과 전남 4H연합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이장으로서 마을일에도 앞장 서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김종익이사가

신임

김 이사장은 진남

제 사무국장과 부

위원장, 상임이사 등 26년간 진남제전

보존회에서 봉사했다.

김이사장은

'진남제전이 호국 민속

축제이자 산 교육

장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종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만들

겠으며 시민화합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한국 4-H중앙연합회장에

보성출신 임용민씨 당선

보성출신 임용민(29·사진)씨가

최근 제 27대 한국

4H 중앙연합회장

에 당선됐다.

신임 임회장은

95년 강진농고 재학시절

4H에 가입해

12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전남전문

대학 학회원에

꼽았던 임회장은

보성군 4-H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이장으로서

마을일에도 앞장

서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2006 한국지방신문협회 편집국장 회의



2006년 12월 14일(목) 16:00

<p